

어수리 주요 병해충 발생과 진단

» 배경 및 필요성

- 어수리 재배에서 생육과 수량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충의 종류를 조사하고 조기 진단 후 적절한 관리로 안정생산 증대에 필요함

» 정보 내용

- 어수리 주요 병해충으로 흰가루병 등 병해 2종, 해충 5종이 5~10월 사이에 많은 피해를 줌
- 어수리 문제병해충 발생시기 및 주요증상
 - 어수리 주요 병해충으로 흰가루병, 점무늬병, 매미나방, 어수리아기잎말이나방, 줄고운가지나방, 도둑나방, 어수리쌍꼬리진딧물, 점박이응애, 파총채벌레의 발생이 평창과 태백지역의 시설재배지에서 5월~10월 사이에 발생하였음
 - 어수리아기잎말이나방은 어수리 줄기, 화경을 파고들어 가해함
 - 도둑나방 대발생으로 잎맥만 남기고 모두 먹어치우는 피해를 보임
 - 파총채벌레는 잎 뒷면에서 흡즙해서 심해지면 잎이 시들어 죽음
- 어수리의 피해증상 사진과 설명을 참고하여 조기 진단이 가능함

» 파급효과

- 어수리 주요 병해충 종류, 조기진단, 적절한 관리로 안정생산 가능

<세부 연구결과>

○ 어수리 주요 병해충 발생 조사 결과

병해충명(학명)	발생지역	발생시기	피해주율(%)
흰가루병(<i>Erysiphe heracleri</i>)	평창, 태백	6월상~10월하	20%
점무늬병(<i>Phoma sp.</i>)	평창	8월상~9월상	10%
매미나방 (<i>Lymantria dispar</i> Linnaeus, 1758)	평창	7월상~8월상	2%
어수리아기잎말이나방 (<i>Epinotia majorana</i> Caradja, 1916)	평창, 태백	8월하~10월상	5%
줄고운가지나방 (<i>Ectropis excellens</i> Butler, 1884)	평창	6월하	5%
도둑나방 (<i>Mamestra brassicae</i> Linnaeus, 1758)	평창	8월상~10월하	30%
어수리쌍꼬리진딧물 (<i>Cavariella heraclei</i> Takahashi, 1961)	평창	6월상~10월하	10%
점박이응애 (<i>Tetranychus urticae</i> Koch, 1836)	평창, 태백	5월중~10월하	10%
파충채벌레 (<i>Thrips tabaci</i> Lindeman)	평창, 태백	5월상~9월하	10%

○ 어수리 주요 병해충 발생종류 및 발생시기

병해충명	시기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	흰가루병			++	+++	+++	++
점무늬병				+	+		
매미나방			+	+			
어수리아기잎말이나방				+++	+++	+	
줄고운가지나방		+					
도둑나방				+++	++	++	
어수리쌍꼬리진딧물		++	++	+++	+++	+	
점박이응애	+	++	+++	+++	++	+	
파충채벌레	++	++	+++	+++	+		

* 발생정도 무 : 0 소 : +, 중 : ++, 다 : +++, 심 : +++++, 조사지역 : 평창, 태백, 시설하우스



[어수리 주요 병해충 발생종류 및 피해증상]

산채연구소

담당자 : 문윤기, 서현택, 김세원, 박기덕, 김정대, 박기진
 (033)339-8803, myg3866@korea.kr